

고려인 트럼펫 연주가가 지은 곡

GRU



<https://youtu.be/Vb1WSjgiBy8>

재즈록 관련해서 자료 찾던중
"하늘을 달리는 말, 천리마"이라는 제목을 보고 ??????

싫어서 봤더만..

예브게니 반(반씨 성은 러시아에선 판으로 로컬라이징 됨)이라는 연주가가 작곡한 곡을 재즈록 앙상블에서 연주하더군요. 시상에 잘 들어보면 아리랑 곡조랑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더군요.

세계의 민족의 혼을 재즈로 표현하자! 라는 느낌의 앨범의 첫 수록곡이라고 하네요.

묘한 느낌입니다.ㅋㅋㅋㅋ

재즈 좋아하면 매우 좋습니다. 추천해요.